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골로새서 4:2-8

심주환 선교사님

매일 크리스마스! 일년 내내 이렇게 인사해도 되겠다. (웃음)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게 되어 감사하다. 올해 2월 둘째주일, 2월 8일 오후에 인사를 드렸었는데,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었고, 마지막 주일 가장 중요한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메시지라기보다는, 한 해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일들, 기도제목들,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자 한다. 벌써 히로시마에 간지 4년 8개월이 되었다. 갈 때는 네 가족이었는데, 이번에는 여섯이 나왔다. 다음에는 또 몇을 데리고 올지 모른다. (웃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내가 복음을 깨닫고 언약을 붙잡으면서, 자녀에 대한 언약도 남달리 붙잡았다. 창1:28,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 (웃음) 막내 성권이 태어났는데, 올 한 해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라도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다. 오전 메시지도 히로시마에 생방송으로 보내었고, 와이프가 통역으로 말씀을 전달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누려지는 시간이었는 줄 믿는다. 작년에 목사님이 왔다 가시면서, '3년이 지났는데 말 한 마디 못하고 허송세월을 했구나' 하셨는데, 이것이 비수처럼 마음에 꽂혔다. 그래서 결단하고 올해 4월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히로시마에서 제일 잘 가르친다고 하는 YMCA언어 전문학교를 다니고 있다. 내년 3월까지 마감인데, 내년 한 해 더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지금은 중급반의 상급반을 다니고 있는데, 내년 한 해를 더 하면 상급반까지 다 마치게 된다. 덕분에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는 것 같다. 스스로 늘었다 하면 부끄럽지만 (웃음) 환경 자체가 또, 일어로 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평일에 다른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는데, 현장이 YMCA학교 자체가 되었다. 기독교 단체고 지금 교장도 기독교인이라서, 많은 만남의 축복을 받으며 인도받으려고 한다. 이번에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더 젊어지셨다'고 인사를 하던데, 감사하다. 내년에는 마흔 한 살이 된다. 내가 젊게 사는 비결이 있다. 학교에 갔더니 통역을 도와주는 학생이 있는데, 만 19살이다. 부산에서 온 친구인데, 이 청년이 나를 보고 '오빠야!'라고 하는데, 심쿵하더라. (웃음) 아직도 오빠 오빠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젊은 아이들과 학교를 다니니 젊어진 게 아닌가 싶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저희도 본 교회에서 하고 왔다. YMCA학생을 불러서 일도 시키고, 교회도 소개하고, 메시지도 전달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응답도 조금씩 있는 것 같다. 내가 일본에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함께 일할 청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두 아이가 와서 일을 돕다 보니까 정말 교회 청년 같았다. 어떻게든 2016년에는 눌러앉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웃음)

1. 1년 동안의 시역보고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물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일이었지만, 굴곡들이 조금 있었다. 3년 전 쯤, 성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다. 한국인 성도 한 분의 소개로 일본인 한 분을 만났는데, 크리스천이지만 교회를 잘 못 나간다고 했다. 3년 동안 틈틈이 교제하다가 올해 4월에 초청을 하게 되었다. 그때 성하와 그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친해졌었다. 그 다음주일이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 계란을 만들고 포장을 하고 문구를 써서 준비를 했는데, 성하가 특별히 그 선생님을 위해서 계란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분이 안 오신 것이다. 이것을 너무 상심해서, 예배 끝나고 나서 계속 오후까지 선생님 오시도록 연락하라고 조르는 것이다. 그래서 오후에 지나가는 길에 오겠다고 연락이 와서 들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출석을 하시다가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셨다. 차로 두 시간쯤 걸리는 오카야마 교회에 갔는데,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다가 걸음이 끊어졌었는데, 우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참 감사한 일이었다. 이렇게 성도 한 분이 늘고, 8월에는 그분을 소개했던 한국 분이 남편의 전근으로 인해서 동경으로 가게 되었다. 한 분이 오시니까 또 한 분이 나가신 셈이다. 그래서 10월에 동경에 가서 교회를 연결해 드리고 왔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처음 히로시마에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었던 히로시마제일교회의 성도 한 분이 연락을 해 왔다. 토요일에 한 번 상담을 하기 위해서 들르고 싶다는 것이다. 사실 탐탁치는 않았지만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가 현재 그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였다. 다른 일본인 교회에는 못 가고, 다른 한인 교회는 모르니까 갈 수가 없고, 나는 거기에서 2년 동안 몇 차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 우리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교회에서 결단하고 다시 강단에서 은혜를 받고 시작하시면 좋겠다고 타일러서 보냈다.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해 보겠다는 다짐을 하고 갔는데, 다음 날 아침에 우리교회로 온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분이 밤새 잠도 못 자고 설치면서 생각이 오락가락하다가, 너무 갈등을 하니, 남편분이 아침에 물어본 것이다. 당신이 갈등하는 게 뭐냐 했는데, 자기는 히로시마참사랑교회 가고 싶은데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남편이, 고민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한 것이다. 이래서 3주 정도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다. 너무 고민이 되어서, 이 성도분 몰래 히로시마제일교회의 이상훈 목사님을 찾아갔다. '이런 사정이 생겼는데, 목사님의 허락 없이는 이분을 우리 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이분이 원래 그 교회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육을 해 달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분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알겠다 하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불신자 남편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하고도 3주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다른 그 교회의 성도 한 분이 연락을 해온 것이다.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싶다는 것이다. 어차피 그쪽 교회는 새벽기도회도 없고, 거리도 우리가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새벽기도는 오셔도 된다고 했다. 수목금

3일 동안 새벽기도회를 했는데, 토요일에 할 말이 있다는 것이다. ‘계속 갈등하는 중에,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일본인 호소가이 상이 여기에 먼저 와 버리는 바람에 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것이다. 자기는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고 죽겠다는 것이다. 자기 자녀도 살려야 하는데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으니. 그래서 담대히 이야기했다. “집사님이 사는 방법이 그것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단, 제일교회 목사님과는 반드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알겠다고 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었다. 남편이 멀리 있으니 이분도 매주 오지는 못했다. 그리고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제일교회 담임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호소가이 상이 다시 본인 교회로 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침사랑교회에서 본인이 대표기도를 했던 영상을 인터넷에서 빨리 삭제해 주시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날벼락이다. 순식간에. 이게 웬일인가. 그 전 주까지만 해도 오후 시간까지 포럼 다 하고 갔는데, 한 마디 전화도 문자도 없이 그렇게 되었다. 도대체 뭘까 싶었다.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없고 본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왜 대표기도 영상까지 내리라고 하는 건가. 대충 짐작을 해 봤는데, 나중에 오신 한국인 분이, 한국에서는 분당 우리교회를 다니던 분인데, 우리교회 홈페이지나 메시지를 다 찾아본 모양이다. 다락방 이단, 어찌고저찌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갔던 모양이다. 신앙생활을 한국에서 오래 하고, 또 유명한 교회에 있었다 보니까 금방 알게 된 것이다. 그분이 호소가이 상과 좀 친했으니까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싶었다. 짐작만 그렇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인데, 우리교회에 남편이 출장가면 아이를 둘 데리고 멀리 교회를 갈 수 없어서 두 번 우리교회에 오셨던 동네 일본인 이주머니 한 분이 있었다. 이분이 자주 놀러오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와이프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다. 어느 날 본교회 일본인 목사님이, ‘혹시 히로시마침사랑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가 이단입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의 교인 절반을 빼앗다고 합니다.’ 그러더라는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것이, 성도는 두 분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목사님이 그래도 지혜로운 것이, ‘알아보니까 이단 시비는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이주머니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던 것과 견주어보아 이상한 것도 없고, 성경적이며, 신앙 안에서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해서 계속 교제를 하고 있다. 횡당한 사건들의 연속이었는데, 일본인 교회에서 그렇게 소문이 나 있다면, 곧 눈 밖에 나는 것이 시간 문제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제했던 히로시마의 교회들과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했다. 처음 히로시마에 왔을 때부터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갈등을 해 왔었는데, 일부러 처음부터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상황이 되게 하시면 이야기를 해야겠다 했었던 것이, 이제 딱 시기가 온 것이다. 그래서 성결교단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는 개혁교단 소속이며, 전 전도총회 소속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저도 그 사명을 가지고 일본에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 이분도 뻔히 잘 아는 것 아닌가. “네, 목사님도 사모님도 참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달라질 것 없지 않겠습니까. 단, 신앙적인 교제는 피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지난 1월에 캠프 팀이 왔을 때, 그 교회가 성전 이전을 해서 우리 캠프팀까지 찾

아가서 축하해 주셨었다. 그런데 그런 교제는 안 하겠다는 것이다. 평일에 교제하는 것은 계속 해도 된다고 하지만, 또 다른 한국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도하고 복음 전하겠다는데, 계속 하면 됩니다.” 확실히 틀리더라. 전도에 올인 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다르더라. 나쁘다 좋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두 분 다 기도하는 분이고 히로시마 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분이지만 차이가 있었다. 10월 이후로 히로시마제일교회와는 연락이 끊어져 있고, 목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연락은 안 되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고, 복음으로 교제한다고 생각했고, 복음을 각인시킨다고 해 왔는데, 껌떼기 하나를 못 넘어서는구나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주변 교회들과 정리가 되어진 상태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부부가 4년 동안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숨어 있다, 한 쪽 문이 막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릴 것이다, 기도하자 했다. 그 사건이 생긴 10월 이후, 11월이 되었는데, 4년 만에, 첫 번째 성도였던 나루치 하즈미 성도가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차로 한 시간 이상 가야 하는 거리에 살았는데, 조금 더 가까이 이사를 오게 되었다. 본인도 인터넷으로 종종 예배는 드렸지만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4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너무 갈급하니까 결단을 한 것이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시댁에서는 교회 한번만 더 나가면 아이 다 빼앗고 이혼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결단을 한 것이다. ‘이제는 아이를 데리고 교회 가겠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예배에 나오고 있는 상태다. 11월 말에 결단했는데, 일본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 인생의 터닝포인트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여긴다. 이분이,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두 주간 교육을 하고, 지난주에 처음 이야기했던 일본인 성도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다. 너무 감격이 되었다.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처음 개척하고, 처음 세례를 주는 것 아닌가. 너무 감격이 되어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집례했다. 사실 긴장되어서 순서도 많이 잊어버리고 그랬었다. 너무 감사한 지난 주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25일이 평일이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한국보다 더 대단하다. 집집마다 트리고, 교회보다 더 멋있게 해 놓았다. 그래도 평일이다. 23일이 천황 생일이라서. 그래서 20일에 행사를 했는데, 두 주 전에 와이프가 어느 마트에서 만난 할머니가 있다. 가방이 열려 있는 채로 장본 것을 들고 집으로 가시기에, ‘할머니, 제가 단아드릴게요’ 하다가 몇 마디를 나누게 된 것이다. 알고 보니 이분이 우리가 처음 히로시마에 살던 집 주변 모든 사람들을 알고 계셨다. “지금 저희 집은 십자가가 세워진 공원 앞집입니다.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날 오후에 물어 물어 찾아온 것이다. 십자기를 찾으려고 봐도 이분은 허리가 굽어있으니 안 보이니까 고생고생 해서 찾아온 것이다. (웃음) 그날 두 시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부터 매일 차를 마시러 오신다. 당뇨가 있으니까 무리해서라도 만 보를 하루에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실 때는 택시를 타고 가신다. (웃음) 이분을 그래서 초청했더니, 이분이 크리스마스 행사에 오셨다. 우리가 이번에는 카페 분위기로 했다. 원탁을 몇 개 준비해서, 의자를 놓고 둘러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자유롭게

게 쉬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 그리스도, 그런 찬양과 영상, 멘트를 준비했다. 그렇게 연출했는데, 다 끝났는데 이분이 안 가고 남았다. 마지막으로 집에 모셔다드리는데, 이분이, 자기 평생에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행복하게 보낸 것이 처음이다 하셨다. 다음에 이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 2월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동네에 폭우로 두 자녀를 잃었던 집 어머니도 초청했는데, 손님이 와서 못 오시고, 대신 다른 가정에서 와서 행사를 같이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해서 올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번에 나오게 된 것은 사실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나도 방학기간이 이때 뿐이다. 다음 주가 지나면 학교를 가야 한다. 겨울방학이 두 주 뿐이다. 성지 성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막내 얼굴도 보여드리려고 한다. 나도 89년 4월에 최정용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고, 성지 성하도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작년 최목사님이 히로시마에 오셨을 때 성오도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권이도 직접 인수할까 하다가, 최목사님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데리고 들어왔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웃음) 한 번 안수도 영원한 안수. (웃음)

2. 전도할 문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점점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시는 것을 올 한 해 동안 경험하게 되었다. 내가 2월에 서서 선포했던 메시지를 혹시 기억하시는가. 일본에 수많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이 있다. 언제까지 편한 대로 선교하려고 하느냐. 정신차리고 선교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네 옆의 멸망당하는 사람이 저렇게 죽을 텐데, 언제까지 그냥 있을 것이냐. 그 마음이 각인되어서 1년 동안 사역을 해 왔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래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이서는 청년을 통해서 매주 기도제목을 올리면서 나누고 있는데, 비록 아멘 해 주시는 분은 고정되어 있지만, (웃음) 서운하지 않다. (웃음) 점점 더 많은 분이 다녀가시면서 기도제목을 함께 하고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근본, 회복, 도전, 그리스도의 근본이, 내 개인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만 한 눈 팔고 내 생각대로 가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벨탑이 된다. 정말 성령충만 기도의 회복이 없으면 내 의지, 내 경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선교지에서 4년 8개월 있는 동안, 처음에는 내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치시고 무너뜨리셨다. 그랬던 것이, 3년째 되는 해부터는 다 내려놓았더니, 너무 삶의 현장에서 안주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는 다시 일깨워 주셨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철저히 성령충만으로 하는 것임이 각인되는 것이다. 사업도 집안일도 같다. 아무리 열릴 것 같은 문도 내 힘으로 열려고 하면 안 열리는데, 하나님이 열어 주시면 간단히 끝난다. 오늘 본문 3절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전도도 선교도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 일본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현장,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이야기를 나는 너무 많이 들었다. 그게 너무 듣기 싫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 생각은 변화가 없다. 너무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참 빛 하나만 들어가면 변화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전도할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모

르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언젠가는 그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1)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적인 기도가 소통되어야 한다. 내가 가끔 오면서 이남현 목사님이나 교역자들, 청년들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생각이 통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과 기도가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씩 시스템을 갖춰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이, 이제는 선교캠프로 다져지게 되었다. 여기 팀들이 올해 5월에 다녀가셨는데, 예수가, ‘선교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시는군요. 하면서 흐느꼈었는데. (웃음) 우리가 언약적인 기도가 통하면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기도가 먼저 통해야 한다. 마6장,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마6:33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 아닌가.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도, 모든 족속, 만민, 땅 끝이다. 마24:14대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오는데, 이 일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것이 언약적인 기도다. 이것이 먼저 통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보잘 것 없었지만,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은 모여서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다. 그랬더니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와서 보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한 것 같다. 모르는 남선교회 분들도 많이 보인다. 그런데 몇몇 분들을 보니까, 여기서서 해외도 가 계시고, 흠여지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점심 때 와이프와 잠깐 포럼을 했다. “드디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말로만 100명 선교사 파송한다고 했는데, 단독선교사는 내가 처음 나오기까지 46년이 걸렸지 않나. 4600년 걸리려고 (웃음)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계속 평신도 선교사를 보내시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언약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더 이상 자기 가정,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제는 내 자녀가 아닌 후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아닌 램넛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다. 일본은 DNA깊은 곳까지 우상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 가장 밑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태영아 때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삼상1장에 보면, 한나가 처음에는 육신적인 기도만 했다. “저 브닌나는 애도 잘 낳고, 엘가나도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애가 없으니.” 그렇게 하다가, 11절이 되어서 언약적인 기도를 깨달은 것이다. “이 시대에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면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언약적인 기도가 이것이다. 넷 까지는 기본이다. (웃음) 다 낳으시고 자기 아이라 생각하지 말고, 세상 문화를 꺾을 하나님의 불화살로 키우시기 바란다. 갈등하지 마라. (웃음) 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다.

(2) 이 언약적인 기도가 되어진다면, 드디어 본문의 기도를 하면 된다. 만남, 직장, 산업을 통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히로시마를 위해서, 중국 몽골 필리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할 필요 없다.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3) 3절 후반부를 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일본은 더 그렇다. 히로시마 내에 목회자 모임이 있다. 일본

현지 교회 목사님들 모임이다. 그 단체에 소속된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한 한국 선교사님이 가다가, 요즘에는 안 간다고 한다. 왜냐 했더니, 전도를 일본에 안 맞게 한다고 이단으로 정죄했다는 것이다. 이단이 아닌데.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이단 소리를 안 듣느냐 했더니, 전도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웃음) 전도는 남에게 폐가 되고 실례가 되니까. 히로시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다. 일본 교회는 전도 안 한다. 혹시 영적으로 조금 민감하고 전도에 열정이 있으면 이지메를 당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다른 것 하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말하지는 것 아닌가. 로마서 10장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14절, 15절에, 들어야 믿을 것 아닌가. 전해야 들을 것 아닌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할 것인가. 여러분이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다 여러분 현장의 선교사들이다. 우리 웹네티크 후대들도 다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공부하라. 나와 같은 선교사가 다 되라는 말이 아니다. 평신도들을 구석구석 다 보내라. 말리지 마라.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또 안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바울은 엡6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엡6:19의 말씀이다. 오늘 4-6절에는, 마땅히 할 말로써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도 한다. 다른 것 할 필요가 없다. 일본은 우상이 종교화되어 있다. 우리 YMCA 선생님 한 분이 크리스천 가정인데, 하는 말이, “그렇긴 하지만 일본에는 여러 종교가 있으니 까 다 섬길 수 있으니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상?” (웃음) 수업시간인데. 그래서 수업시간이지만 이야기해 버렸다. “일본인들이 여러 종교를 섬기는 것은 참 행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섬겨 보아도 가짜인 것을 못 느끼시나요?” 일본 신사를 가 보면, 모든 신사가 그러한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외곽 쪽으로 돌아가 보면, 작은 집이 있다. 거기에는 온갖 부적, 인형,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다. 자기가 믿던 신, 가지고 있던 부적, 집안의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려고 갖다 버린 곳이다. 그냥 버리면 저주를 받을 것 같으니까, 신사에 모시고 자기는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나.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했다. 저주 재앙 지속 사단의 배경을 끝내셨다.' 이것만 전하면 된다. 참 쉽지 않나.

3. 전도할 문을 보는 전도자의 삶

(1) 오늘 본문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한국에 있을 때도, 일본 가서도 종종 듣는 말이, ‘참 좋은 사모님을 만나셨네요. 목사님은 사모님 때문에 사시네요.’ (웃음) 자주 들었다. 내가 봐도 그렇다. 성질 더럽고 못 됐고 성도들과 싸우고 그랬는데. (웃음) 우리 와이프는 친화력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들러붙는다. 그 할머니도 신기하다고 한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냐는 것이다. 중심이 다른 데 있지 않다. 복음 전해야 하니까, 구원받아야 하니까, 외인에게는 지혜로 행하는 것이다.

(2)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와이프가 그렇다. 얼마나 말 잘 하나? 사근사근하게 하면서, 음식 먹을 때는 “와, 진짜 맛있다!” 맛없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한다. (웃음) 나도 많이 배웠다. 사실 학교에서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 마

음에 안 드는 학생과 부딪힐 때도 있다. 24일에 YMCA 학교에서 400명을 모아서 히로시마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빌려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1부는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여기에 설교를 하러 오신 목사님이, ‘교인 절반을 빼앗아갔다는데요?’ 했다는 목사님이었다. (웃음) 기회가 싶어서 일부러, “제가 그 교회 목사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명함 드리고 인사했다. 조만간 찾아가려고 한다. 그날 그런데 젊은 중국인 유학생 아이가 밥을 전혀 안 먹고 팔짱끼고 앉아있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 것이다. 너무 예의가 없었다. 불같은 성질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와이프의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내색도 하지 않고, 웨이터를 불러서 새 젓가락을 부탁해서 전해준 것이다. 옆의 한국인 학생이 놀랐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 같으면 성질부터 났을 텐데, 역시 목사님은 다르네요?” 내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다. (웃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중국인 아이가 그제서야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왔어요?” “응, 한국에서 왔어.” “저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웃도 한국 웃만 입어요.” 그렇게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이다. 요14:26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 언약과 언약적인 기도의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할 거리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어제 오늘 간증을 들었는데, 김순호 집사님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반 아이들에게 써 주셨다고 한다. 3종직 메시지를 담아서 반 아이 전체에게 주셨다고 한다. 교편을 잡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는 못 하는 부분인데, 너무 감사하고, 결단하시고 교사로 헌신하시는 것이 참 감사하다. 김지현 집사님은 25일에 남편이 차 키를 들고 간 바람에 택시를 어쩔 수 없이 타야 했는데, 그 택사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 교회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분위기도 성도들의 삶도.

결론을 맺겠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교회 메시지를 여기에서 매주 녹취를 해서 보내고 있다. 요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런데 조금 이상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왜 저렇게 열변을 토하나 싶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시비에 걸리면서 계속 성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원색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계십니다. 저는 다른 말을 하는 목사가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선교사입니다.” 짧게 한 주 지내면서 이 자리까지 다섯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귀해 보인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고 싶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확실한 교회에 앉아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란다. 가장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함께 가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머지않아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이다. 히로시마, 일본 뿐 아니라, 저 무슬림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한다.